공화국창건 75돐

삼천리를 진감한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지금도 70여년전 이 나라 강산을 진감하던 우렁찬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얼마나 갈망하던 자주독립국가인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온 겨레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공화국을 자기들의 진정한 국가로 받들어올리였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반일항전에서 축적되고 양성된 민족의 거대한 힘은 뜨거운 건국열의로 달아올랐다. 새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온 겨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고 도처에서는 인민들자신의 창의에 의해 인민위원회들이 속속 출현하였다.

하지만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민족분렬의 비운이 짙어갔다.

미제는 남조선에 기여들어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군정을 설치하였으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요구와 애국적진출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한편 어제날의 친일주구들을 친미분자로 전락시켜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 삼기 위해 광분하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하루속히 건설할 과업을 제기하고있었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력사적인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다고,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연설을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정견과 신앙이 다른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도 만나시여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의 필요성과 그 과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온 민족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 민족운동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 다음해 2월에는 조선인민당 위원장 려운형과 하신 담화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새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는것,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미군의 방조로 새 나라를 건설하려 한다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을뿐 아니라 또다시 망국노의 처지에 빠지게 될것이라는것,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하고 자기의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과 남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전체 조선민족의 이 앙양된 건국기세에 질겁한 미제는 유엔을 내세워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강행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5월초 쏙섬에서 진행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회에서도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와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방도와 그 전망에 대하여 하나하나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은 5.10단선반대와 쏘미량군철수를 위한 남북련석회의결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쟁을 벌려나갔다.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5.10단선반대투쟁으로 단독선거는 사실상 파탄되였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단독정부》 수립놀음을 벌려놓았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대책을 세우시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소집하시고 회의에 친히 참석하시여 지체없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세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전 조선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회의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여 북반부지역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사무원, 지식인,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 212명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한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지역에서는 먼저 유권자들이 비밀리에 서명의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거하고 그 인민대표들이 해주에 모여 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드디여 1948년 8월 해주에서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천한 1 080명의 인민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남조선지역 대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해주에까지 나오시여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전 조선최고주권기관과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이 가지는 중요성과 대회에서 선거된 대의원들이 앞으로 창설되는 자주독립국가의 대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360명의 대의원을 선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갈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올렸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일성**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1948년 8월 25일 남북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선거방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가장 우수한 아들딸, 진정한 애국자들을 동일동시에 통일적으로 선거하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완전히 성공시킴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를 만드는것입니다.

…

우리는 이 력사적대회를 마치면서 장군님과 북조선 인민들이 보내준 모든 성원과 협력에 대하여 남조선 전 인민을 대표하여 장군님과 장군님이 지도하시는 진정한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전체 북조선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남북조선통일민주주의선거 승리 만세!

조선최고인민회의 창설과 통일중앙정부수립 만세!

북조선민주개혁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그의 지도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에 의하여 주체37(1948)년 9월 8일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리였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시였다.

다음날인 9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시고 그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참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떠받들려 창건된 공화국은 진정한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적중앙정부의 첫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 그날의 감격을 당시의 《로동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장군께서 수상으로 선임되신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것이다. …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께서 등단하시니 만장은 총기립하여 우렁찬 오랜 박수로 환영하였다. …

김일성장군을 통일정부수반으로 받들려는 조선인민들의 숙망은 실현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새 조선의 탄생을 경축하는 뜻깊은 경축시위에서 자주독립국가의 창건자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 부르고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고 노래하면서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이것은 지난날 약소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던 우리 겨레에게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고 존엄높고 힘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의 분출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9.9절을 맞을 때마다 먼저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고, 이날은 공화국창건을 선포한 날이라는 의미에서보다 우리 수령님을 자주독립국가의 첫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한 날이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이 땅의 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따라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용기백배하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줄기차게, 힘있게 걸어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애국인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여

공화국이 창건되던 나날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위임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내각성원들중에는 북반부에서 선거된 대의원도, 남조선에서 온 대의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항일혁명투사들도 있었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때 홍명희선생은 내각부수상의 중책을 받아안았다.

홍명희선생으로 말하면 장편력사소설 《림꺽정》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문필가였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애국계몽사업과 민족주의운동에 적극 나섰던 인사였다.

해방후에는 민족의 영웅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지니고 남조선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사업하였으며 1947년 10월에는 민주독립당을 결성하고 그 당수로 활동하였다.

주체37(1948)년 5월 6일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던 홍명희선생을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민족분렬의 엄혹한 형세를 관망만 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대들에게 엄중한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결만이 민족재생의 길이고 민족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 신념을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였다.

한지맥, 한피줄을 이은 나라와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비극을 끝장내시려는 뜨거운 애국심이 넘쳐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홍명희선생은 그이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의지를 가다듬었다.

하기에 그는 북조선에 남아 일할 자기의 결심을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리고 그이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으며 민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바로 그러한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건된 공화국의 내각부수상으로 내세워주시였던것이였다.

공화국내각의 요직에 임명된 남조선출신인사들은 홍명희선생만이 아니였다.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 **김일성**종합대학의 초대총장이였던 허헌선생, 초대교육상 백남운선생, 초대보건상 리병남선생 등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명망있는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이 공화국내각의 중요직책들에 임명되여 그처럼 소원이던 조선민족의 새 나라를 위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실공히 북과 남 온 민족의 총의에 떠받들려 창건의 고고성을 울린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하기에 공화국창건후 남조선의 민주주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도 련이어 공화국의 창건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이를 공화국 내각수상으로 추대한데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었으며 각계층 인민들은 곳곳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실로 온 겨레의 총의에 의해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의 참다운 조국이다.

본사기자 손 지 성

《나도 새 조선의 주인이다!》

-첫 민주선거가 진행되던 나날에-

장장 75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아로새겨오는 공화국은 근로인민을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지금도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인민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첫 민주선거가 진행되던 나날 각계층 인민이 터치던 격정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듯싶다.

《…우리들은 모두가 일제와 그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학대를 받아왔으니만큼 한결같이 근로인민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무기로서의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였다.

가난한 한 목수가 어느 름에 정성껏 밀어두었던 널판자에 인민위원회의 명칭을 써서 높이 달았을 때 사람들은 환성을 터치였다. …》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인네도 어린이들도 모두 둘러앉아 래일로 닥쳐온 선거의 이야기요, 우리의 후보자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이다.

…인민들에게 일찌기 어느 시대에 이같이 숭고한 전가족적화제가 제공되였으며 온 집안이 둘러앉아 정치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들이 한밤을 자지 못하는것도 과연 당연타 할것이다. …》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이 땅우에서 살면서도 정치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언제한번 정사에 관여해본적이 없고 짓밟히고 천대만 받아왔다. 봉건적억압에 찌들리고 망국노의 설음속에 천대와 멸시를 숙명처럼 간주하고 살던 이 나라 인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게 된것은 언제부터였던가.

주체22(1933)년 3월 왕청 제5구 인민혁명정부수립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열정에 넘쳐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의 구절구절은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인민혁명정부, 그것은 인류의 정권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였고 유격구인민들은 정권의 진정한 주인이 된 행운아들이였다. 인민혁명정부가 안겨준 땅에서 마음껏 농사도 지어보았고 자식들을 아동단학교에 보내여 무료로 공부도 시키였다. 그들은 우리는 인민혁명정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낌없는 지성을 쏟았고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피도 흘렸으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비록 이역의 산골마을들에 세워졌던 인민혁명정부였지만 력사는 처음으로 인민의 참다운 정권을 보았고 그를 자기의 갈피에 새겨놓았다.

유격근거지에서의 정권건설에 관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구현된 인민의 주권, 부강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 구상에 따라 해방된 이듬해 11월에 진행된 첫 민주선거였다.

1947년 10월 26일부 《로동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작년 11월 3일 승리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가을밤은 유난히 긴것같았다.

제6호선거구 제52호분구인 모범선거장 북조선전기총국마당에는 이른아침부터 공민증, 투표증을 쥐고 정각 7시를 기다리는 긴 행렬이 있었다. 이 분구는 우리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고귀한 한표를 내시게 되는 기쁨에 가득찬 제52호분구였다.

이날을 회상하여 한 선거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투표가 시작되여 진행중이던 오전 10시에 갑자기 장내에서 터져오르는 〈**김일성**장군 만세!〉소리에 뒤이어 만면에 웃음을 띠우신 김장군님께서 나타나시였을 때 참으로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공민증을 내놓으시면서 〈**투표하러 왔소.**〉라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들려오는것 같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새 조선에서의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였으니 인민의 환희와 기쁨은 끝이 없었다.

나라없어 피흘리고 지켜줄 품이 없어 억눌리던 우리 인민이 드디여 자기의 두손으로 민주의 새 정권을 안아올리는 장엄한 력사의 날이 왔던것이다.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새납소리, 꽹과리소리 요란한 선거장에서 너도나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출 때, 고생살이로 마디굵어진 자기의 손에 선거표가 쥐여진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오열을 터칠 때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이렇게 울렸으리라.

나도 새 조선의 주인이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주권이 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몽당치마를 눈물로 적시며 골방안 감옥살이 언제 끌나랴 하고 한숨속에 살아오던 녀성들이 대의원이 되여 정사를 론하고 막벌이군이 나라의 첫 상으로, 도대의원으로 되리라고 과연 누가 생각이나 하였던가. 어제날 머슴으로 살던 이 몸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라는 노래가 이 땅에 울리게 될줄 그 어이 알았던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는 해방후 첫 시기부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주권의 력사가 펼쳐졌다.

본사기자 김 철 진